

## 일본의 직물 수출

### 면직물이 폴리에스터·필라멘트 직물을 웃돌아

일본의 수출 섬유품중에서 폴리에스터·필라멘트 직물은 일본 섬유산업을 대표하는 수출상품으로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었는데, 작년(2002년) 상반기에 면직물의 수출실적이 폴리에스터·필라멘트 직물의 수출실적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나타냈다.

輸出 實績(金額기준)

| 구 분     | 綿織物     | PE(長) 織物  |
|---------|---------|-----------|
| 1997年   | 794,557 | 1,293,785 |
| 98年     | 702,740 | 1,089,948 |
| 99年     | 852,563 | 1,177,105 |
| 2000年   | 946,550 | 1,147,966 |
| 01年     | 899,786 | 1,018,828 |
| 2002/01 | 63,359  | 53,915    |
| 02      | 64,950  | 58,338    |
| 03      | 83,135  | 67,171    |
| 04      | 71,833  | 64,344    |
| 05      | 79,749  | 75,109    |
| 06      | 81,539  | 88,881    |
| 07      | 85,053  | 95,012    |
| 08      | 61,927  | 76,389    |
| 09      | 60,277  | 64,089    |
| 1-9월 合計 | 651,823 | 643,247   |
| 前年同期比   | 103%    | 88%       |

(單位 1,000 US\$, 出所 : 日本纖維輸出組合)

일본의 직물수출은 그 동안 폴리에스터·필라멘트 직물이 면직물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1997년에는 폴리에스터가 62, 면이 38로 거의 3:2의 비율을 보였고, 2001에는 53:47까지 격차가 줄었다. 폴리에스터·필라멘트 직물은 이웃나라로부터의 추격으로 일본의 점유율(占有率)이 줄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면직물은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서서히 수출이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봉제용 원단을 일시적으로 해외 봉제거점으로 수출한 다음 완제품으로 다시 수입하는 양도 적지는 않지만, 수출상품간의 역학관계(力學關係)가 크게 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002년의 월별 수출실적을 보면 계절적인 요인 때문인지 1~5월까지는 면직물의 수출이 폴리에스터·필라멘트 직물을 앞지르고 있어, 이제까지 오랫동안 이와 같은 현상이 전혀 없었기에 근래에 보기 드문 이변(異變)으로 보고 있다. 일본상사 무역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폴리에스터는 최근 이렇다 할 만한 새로운 원사 개발도 없었고 부인옷용이나 안감용 중급품은 중국이나 동남아에 밀리는 등 폴리에스터의 퇴조(退潮)가 심하기 때문이며, 스포츠용 기능소재가 국제 경쟁력을 얼마나 잘 지켜 줄지가 문제”라고 한다.

한편 면직물은, 봉제품이 되어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수출품의 약 절반정도는 될 것으로 짐작되지만, 금액으로는 폴리에스터를 일시적으로 웃돌 만큼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이는 데님 등은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일본의 면직물이 항균·소취·흡습·보온 등 각종 기능 가공에서 우수하기 때문으로도 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등의 가공기술이 끊임 없이 향상되고 있어 우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얼마나 계속될 것 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2001년부터는 니트업계가 타월업계가 앞장서서 수출 진흥을 추진하고 있

으며, 면직물업계에서도 수출증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면직물과 폴리에스터·필라멘트 직물의 수출실적 순위에 있어서 역전(逆轉) 현상은 면직물이 잠재적인 저력을 회복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면직물 산지에서 이 흐름을 타고 적극적으로 해외수출을 추진하려는 강한 분위기가 관련업계에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주목할 만하다.